

고창, '수필 문학의 성지'로 빛난다

전국단위 수필과비평작가회의 · 황의순 문학상 · 수필과비평 문학상 · 신인상 등 개최

깊어가는 가을, 고즈넉한 선운산 자락이 한국 수필 문학의 찬란한 빛으로 물들게 된다.

전국 수필 문단의 구심점인 수필과비평 추계 세미나 및 수필과비평작가회의(회장 임동욱)가 오는 27~28일, 고창 선운산관광호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전국지부의 수필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운데 '제20회 황의순 문학상' 및 '제25회 수필과비평 문학상', 그리고 '수필과비평 신인상' 시상식이 성대하게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문학상을 수여하는 것을 넘어, 문학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깊은 성찰을 나누는 감동적인 문학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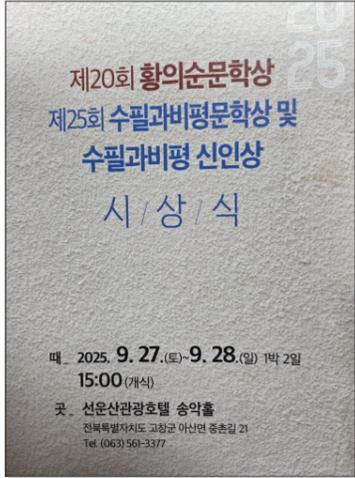
오후 3시, 선운산 관광호텔 송악홀에서 문을 여는 이 행사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문학인들과 황의순 문학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수필과비평 문학상, 그리고 한국 문학의 미래를 책임질 신인상 시상식이 차례로 진행된다.

수상자들의 진심 어린 수상 소감과 신인상 수상 대표자의 희망찬 인사말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공감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기념품 증정과 킷박스 전달, 기념 촬영에 이어 권위 있는 문학 특강까지 마련되어, 수필 창작의 지평을 넓히고 문학적 교류를 심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제20회 황의순 문학상'은 김추리 작가에게 돌아갔다. 깊이 있는 통찰과 아름다운 문장으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김추리 작가는 이번 수상으로 한국 수필 문단에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

'제25회 수필과비평 문학상'의 영예는 진해



'제20회 황의순 문학상', '제25회 수필과비평문학상 및 수필과비평 신인상' 시상식이 27~28일 고창에서 개최된다.

자 작가, 임낙오 작가, 박선숙 작가 세 분이 함께 안았으며, 이들의 수필은 삶의 진솔한 모습과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을 탁월하게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미래 한국 수필 문학을 빛낼 새로운 별들이 고창에서 탄생한다. 김정영, 노명숙, 신혜원, 김우락, 류지영, 손정원, 김규을, 박원근, 박형원, 변종욱, 손준식, 임성희, 이은조, 이은주, 이향영, 한성희, 이경미, 최명숙, 최미영, /이만호 기자 · 고창=김영식 기자

최정란 작가 등 총 20명이 '수필과비평 신인상'을 수상하며 정식 문단에 등단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는다.

이들의 등장은 한국 문학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고, 수필 장르의 지평을 더욱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수상 후 문학특강은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인 우찬제 교수의 수필문학 창작에 대한 깊이 있는 울림을 주는 강의로 진행된다.

28일은 천년고찰 선운사 탐방, 제철을 맞아 활짝 핀 꽃무릇 감상과 함께 미당시문학관 관람까지 이어진다.

수필과비평작가회의는 전북의 출판 명가인 신아출판사 서정환 사장이 '수필과비평'을 통해 등단한 작가들의 문학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자질 함양을 돕기 위해 설립된 역사 깊은 단체이다.

매년 2회에 걸쳐 전국의 수필가들을 모아 세미나와 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하며 문학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약 65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 모임마다 3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수필 문학인 모임으로서 한국 수필 문단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아름다운 고창 선운산의 가을 풍경 속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한국 수필 문학의 깊이를 재확인하고, 새로운 창작의 영감을 불어넣는 잊지 못할 축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필 문학을 향한 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끊임없는 도전이 한국 문학의 더욱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이만호 기자 · 고창=김영식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28)

착수금은 준비되었소?

- 오상근 -



옷을 입고 나서는데 박창수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 자는 동식이 운전장에서 몸을 개운하게 씻은 것을 언제 알고 이렇게 때를 맞춰 전화하는지 모르겠다.

이전 통화에서 동식은 만나자고 했고 박창수는 일정을 잡아서 전화를 하겠다고 했다. 동식을 만나려고 전화한 건가. 운전 뜨거운 물로 늘어질 대로 늘어진 안면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다.

'만남이다.'

전화를 받자마자 박창수가 말했다. 만남이다. 단 네 개의 음절이었지만 하나하나 음절의 무게는 며칠 전 아산면 반암리 호암마을에서 봤던 병마위 크기만큼이나 무겁게 동식의 몸을 짓눌렀으며 두꺼운 빗줄이 되어 동식의 목을 칭칭 감아 언제든 힘을 주면 동식의 숨통을 끊어버릴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박창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동식이 애호하는 말보로의 흠여지는 담배 연기가 아니다. 현실이며 실존이다.

무거울 때문에 얼굴 근육을 찌푸렸지만 곧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정상적인 얼굴을 했고, 결기까지 편 표정으로 변했다. 비츠니스로 연장을 들고 작업을 하러 갈 때처럼 은뎀의 근육이 팽팽해지는 느낌이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동식이다. 위험이 도사리는 작업 현장에 한두 번 출몰해본 게 아니다. 동식의 비즈니스는 위험이 독사처럼 몸을 움크리고 있다면 기습해올지 모르는 어두운 뒷골목을 뛰어다니는 일이다.

박창수의 의뢰건도 마찬가지다. 조금 부패한 클 뻘이다. 고창읍성을 매일 돌다가 선운산을 트레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업무의 강도가 약간 셀 뿐 어차피 같은 비즈니스니까.

어디까지나 비즈니스다. 본능적으로 착수금 생각이 머릿속으로 슬며시 끼어들었다. "착수금은 준비되었소?"

"준비되었소."

시원시원해서 좋다. "어디서 만날까요?"

"무장에 오면 도곡리 시목동 마을이라고요."

"도곡리 시목동 마을요?"

"그 마을 경로당 길을 타고 올라오면 계곡길로 올라가는 길이 있소. 그 계곡길에

차를 받쳐놓고 기다리겠소."

사람들 눈을 피하기 위해 깊은 마을구석 어디서 만나자고 하는 건가. 그런데 왜 하필이면 무장면인가. 요즘 자주 무장면이 동식의 주변에서 얼씬거리고 있다.

"언제 불까요?"

"지금 올 수 있소?"

만나지는 것은 뜬금없이 만나기로 정하자마자 당장 만나자고 하는 건 무언가. 어차피 시작하려면 미를 필요가 있다. 동식은 알았다고 말하고 곧바로 박창수가 말했던 무장면 도곡리 시목동 마을을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해는 천천히 구슬로 해안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음지는 이미 어둑어둑해졌다. 들녘은 황금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고 가로수와 산을 덮고 있던 녹음들은 잎을 하나 둘 떨어뜨리며 조금씩 바래가고 있었다.

15분 정도를 달려 박창수가 알려준 장소에 도착했고 어렵지 않게 박의 차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밖에 전화기를 넣었다.

"어떻게 만날까요?"

"내 차 쪽으로 오시오."

이거 혹시 유인하는 것은 아니겠지. 나쁜 쪽으로 생각이 들었다. 연장이라도 하나 들어야 되는 건가.

하지만 동식의 육감으로 판단할 때 박이 장난을 치는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무엇보다도 전화 목소리가 진지했다. 그냥 가볍게 처신하는 음성이 아니었다.

일시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일을 청부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묵어 있던 뉘를 꺼내는 그런 목소리였고 그런 의지가 음성에 담겨 있었다.

동식은 주변을 둘러봤다. 어둠이 마을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차 문을 열고 나서자 스산한 가을바람이 뒷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이것이 한지다'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개최

10월 2~4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서

2025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제29회 전주한지문화축제)이 다음 달 2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막이 오른다.

25일 전주문화재단에 따르면 10월 2~4일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서 '이것이 한지다'를 주제로 한지의 전통적 가치에서 산업적 가능성, 일상 속 쓰임까지 확장된 면모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개막 퍼포먼스로 문을 연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원하는 퍼포먼스에 이어 전국한지공예대전과 전국어린이한지 미술대회 시상, 시민모텔이 함께하는 런웨이와 국제한지패션쇼가 한자리에 펼쳐진다. 밤에는 '한지로온 밤' 프로그램을 통해 가을 버스킹과 한지 피크닉 콘셉트의 야간 이벤트가 이어져 낮과 밤이 다른 전주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참여형 프로그램에는 전주한지운동회가 있다. 2일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관광객이, 3일에는 관내 유치원생들이, 4일에는 사진 신중한 시민 가족이 참여한다. 한지 답 쓰기, 한지 줄

다리기, 박 터뜨리기, 한지 챌린지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종목을 통해 한지를 몸소 경험하게 된다.

이 행사는 세종화당과 연계해 해외에서도 동시 진행된다. 미국(오번 · 샌프란시스코), 캐나다(몬트리올 · 워털루), 베트남(꾸이년 · 빈즈영 · 하노이 · 베트남 거점), 아랍에미리트(사르자 거점 · 아즈만) 등 4개국 10개소에서 한지 꽃놀이, 한지 제기차기, 한지 딱지치기, 한지 공기놀이, 한지 비행기 날리기 등이 펼쳐진다.

앞서 재단은 9월부터 짐바브웨 블라와요와 체코 프라하에서 전주한지를 소개하는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또한 10월 2~17일까지 일본 가나자와 공예인들과의 교류전도 마련됐다.

또한 한지의 산업적 응용을 실험하는 '한지 비즈니스 모델 파빌리온'도 선보인다. 건축가가 한지의 평량 · 두께 · 인장강도 등 물성을 바탕으로 3개월 간의 실험을 거쳐 제작한 한지 패널을 현장에 설치하고, 2일 오후 4시에는 건축가와 함께 '한지답론' 토크를 열어 건축적 소재로서의 한지를 전문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한편 축제 기간 내내 한지장의 제조 시연과



한지 체험 · 판매, 전통놀이, 소규모 이벤트가 상시 운영된다. 전주경기전 내 전주사교에서는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과 '전주사교 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 전통 기록문화의 의미를 현장에서 생생히 전달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립국악원 신청사 개원... 국악 세계화 거점 도약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전북도립국악원 신청사에서 개원식을 열고 국악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다.

행사는 이정식 문화체육관광국장, 문승우 도의회 의장, 도의원, 관계기관, 국악 예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신청사 건립은 1985년에 완공된 기존 청사의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국악 교육과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도는 옛 부지를 철거하고 2023년 3월 착공해 올해 3월 준공까지 총사업비 236억 원을 투입했다. 지난 7월부터는 새로운 공간에



서 국악 연수를 시작하며 한층 확장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6,339㎡ 규모로, 기존 청사보다 약 2.5배 넓어졌다. 국

악연수실 15개, 공연기획실, 교육학예실, 사무실 등을 갖추었으며, 주 · 야간반 운영 확대와 연수실 확충을 통해 도민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국악을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새 공연장은 다양한 국악 공연의 무대로 활용돼 도민들에게 수준 높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전통문화체험관과 명인홀에는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 등 예술 3단이 상주해 전북 국악의 저력을 보여주는 완성도 높은 공연을 이어간다.

김관영 도지사 축사를 통해 "전북은 국악을 비롯한 문화예술의 저력이 큰 지역"이라며, "도립국악원이 전통음악을 계승 · 발전시키고 세계에 널리 알리는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아시아 최대 관광 박람회 '투어리즘 EXPO 재팬' 서 전북 매력 홍보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25일부터 28일까지 일본 아이치 스키아 엑스포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 국제 관광 박람회인 '투어리즘 EXPO 재팬 2025'에 참가해 전북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 각국의 관광 관계자와 여행사, 언론 매체가 참여하는 국제 행사로,

전북은 현지 관광업계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방한 여행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며, 관광객 유치에 위한 전략적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전북 홍보관에서는 도내 14개 시 · 군을 대표하는 축제와 관광지, 지역 먹거리 등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일본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전주 한옥마을, 남원 관광투어,

오성 한옥마을, 고창 청보리밭 등 주요 관광지와 유명 영화 · 드라마 촬영지까지 폭넓게 소개하며 현장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또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SNS 이벤트를 진행해 전통 한지부채 등 기념품을 증정하고, 전북 관광지지도와 축제 리플렛 등 홍보물을 배포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현지 여행사와의 B2B 상담을 통해 신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

/오상근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내달 2일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참가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오는 10월 2일, 충북 영동에서 어린이 무용극 '강강술에 떨어진 달님'을 공연하면서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에 참가한다.

이번 무대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영동북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두 차례 열리며, 작품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강강술래'를 모티브로 한 어린이 국악극으로, 숲속에 떨어진 달님을 구하기 위해 동물 친구들이 힘을 합쳐 떠나는 모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통 놀이와 춤, 국악 선율에 창의적인 연출을 더해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한다.

강강술에 떨어진 달님은 이미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어린이날 특별공연으로 무대에 올라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대본 박지선 △연출 김세희 △음악은 이아로 작곡가가 맡았으며,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출연해 각기 다른 동물 캐릭터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남원도예가협회 회원전 '스미다'展 10월 26일까지 개최

남원도예가협회가 두 번째 회원전 스미다(스며들다)展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 달간 남원시 갈치마을 예술문화공간 파도(중갈치길 66)에서 열리며, 이병구 작가를 비롯한 7명의 도예가가 참여해 다양한 작품 세계를 선보인다. /남원=김기두 기자

스미다(스며들다)라는 주제는 흙과 불, 그리고 작가의 사유와 감각이 서서히 작품에 녹아들어 하나의 예술로 태어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이번 전시는 도자가 일상과 자연, 사람과 공동체 속으로 스며드는 의미를 전달하며,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 예정이다.

남원시립청소년 국악단, 영동세계국악엑스포 행사 성황리 마쳐

남원 안숙선 명창의 여정(관장 김미나 명창) 남원시립청소년 국악단이 지난 23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남원 초 · 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어 남원시 안숙선 명창의 여정 관장인 김미나 명창의 지

도를 받은 시립청소년국악단은 남도시나위가 락, 판소리 춘향가 中 사랑가, 흥부가 中 화초장 대목, 민요는 농부가, 강강술래, 개투리타령, 진도아리랑 등을 전 세계 30여개국의 참가단과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뜨거운 호응 속에서 공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